

#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과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오심

(주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 마지막 때에 시대를 전환하도록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님

성경: 계 12:1-14, 느 1:1-11, 2:9-20, 4:4-5, 9, 5:10, 14-19, 8:1-10, 13:14, 29-31

### I. 하나님의 갈망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 A.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주님을 양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 곧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특별한 때이다. 따라서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믿는 이들이 필요하다.
- B. “가라(go).”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오라(come).”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은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 비교 영어 회복역 히 10:22.
  - 1.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이들에게 “나아가라(go forward).”라고 말하지 않고 “나아오라(come forward).”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 저자가 특정한 곳에 있었고, 그의 서신을 읽는 이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기를 원했음을 의미한다.
  - 2. 우리는 세 가지 것에, 곧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께 나아와야 한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아오라.’ — 히 4:16, 10:22, 7:25, 11:6.
  - 3.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시고,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다. 히브리서를 쓸 때 이 저자는 그곳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나아오라고 부르고 있었다.
- C. 사내아이가 하늘로 휴거되는 것, 사탄이 땅으로 내던져지는 것, 왕국이 나타났다는 하늘에서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사내아이를 얻으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내아이를 얻으시는 것이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기 때문이다 — 계 12:5, 9-10, 11:15.
- D.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되는 것은 천이백육십 일, 곧 삼 년 반(마흔두 달)의 대환난 기간 전에 일어날 것이다 — 계 12:1-14, 13:5, 11:2.
- E.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계 3:18.

### II.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이르고 그분의 요구를 충족할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내아이의 원칙이다 — 계 12:1-2, 5, 10-11, 2:7, 11, 17, 26-28, 3:5, 12, 20-21.

- A. 우주적인 빛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는 확대되어, 사내아이가 상징된 이기는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백성 중 더 강한 부분을 포함하게 된다 — 계 12:1-2, 5, 10-11.
- B.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변형된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단체적인 여자의 씨 곧 이기는 사내아이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로 옛 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가 되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왕국의 출현을 이끌어 오게 하시려는 것이다 — 계 12:5.
- C. 시편 2편 8절과 9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12장 5절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주 예수님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사내아이가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과 이기는 이들과 사내아이가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인도하는 이기는 이(계 3:21)이신 주님은 사내아이의 머리와 중심과 실재와 생명과 본성이시며, 주님을 따르는 이기는 이들은 사내아이는 주님의 몸이다.
- D.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뱀인 사탄은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요 12:31, 16:11). 그 심판과 선고는 결국 사내아이이자 단체적인 여자의 씨인 이기는 이들에 의해 수행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은 사실상 사탄에게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결국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기 위한 것이다(계 12:7-9).
- E. 사내아이는 이기는 이들, 곧 교회를 대표해서 있고, 온 교회가 취해야 할 위치를 취하며, 교회를 위해 그 일을 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 계 2:7하, 11하, 17하, 26-28, 3:5, 12, 21, 12:5, 11.
1.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해야 하지만, 자신들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모두가 다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한 무리, 곧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를 선택하신다.
  2.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더 강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땅으로 이끌어 오는 하나의 집합적인 단위로 여겨진다 — 계 12:5, 10-11.
  3.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내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 딤후 1:4, 딤후 1:9, 앰 1:9, 11, 3:11.
  4.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올 사내아이가 필요하시다.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경륜은 오직 사내아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 계 12:10.
- F. 사내아이의 휴거는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늘에서 입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조취이다.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어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드려야 한다 — 계 12:5, 7-10.
- G. 사내아이를 구성하는 이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곧 마귀(참소자 혹은 비난자)를 이기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 계 12:10-11.
- H. 사내아이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속사람에 이르도록 날마다 강하게 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마음 안으로 건축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보양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다 — 앰 3:16-18, 8, 6:10-11.

III. 이스라엘이 칠십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참된 이기는 이였던 느헤미야로 인하여 여전히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셨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이다 — 느 1:1-11, 2:9-20, 4:4-5, 9, 5:10, 14-19, 8:1-10, 13:14, 29-31.

A. 느헤미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예루살렘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인 그분의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회복이 계속되는 것이었고, 동시에 성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켜 주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1. 이것은 땅 위의 하나님의 거처와 가정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함을 상징하는데,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도록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영역이다 — 비교 롬 14:17.
2.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의 예표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의 예표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시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다 — 마 16:18-19.

B.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갖게 된다. 우리가 더 전진하여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다면, 집은 확대되어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 엡 1:10, 22-23, 4:15, 계 22:1.

C. 느헤미야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하게 진취적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1.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잘되게 하려는 것 때문에 몹시 언짢아했다. 롯의 불결한 증가에서 나온 이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고 멸시했다 — 느 2:10, 19, 비교 겔 25:3, 8.
2. 이러한 반대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에 대해, 느헤미야는 매우 순수했고 진취적이었으며 소심하지 않았다 — 느 1:4, 2:3-8, 17-20, 4:3-5, 8-9, 14, 17-23, 5:14, 13:23-31, 비교 행 4:29-31, 살전 2:2, 딤후 1:7-8.
3. 진취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고, 이러한 동맹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 행 26:21-22.
4. 느헤미야의 진취성은 그의 인간 행동의 미덕이었으며,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곧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 안으로 이끌려야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D. 느헤미야는 자신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고 부활 안에서 살았다. 그는 진취적이었지만, 그의 진취성은 여러 특징들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1.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땅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그분의 권익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 왕상 8:48, 비교 딤후 3:1-5.
2.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 — 느 1:1-11, 2:4, 4:4-5, 9.
3.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다 — 느 5:19, 비교 고후 5:20.

4. 백성과의 관계에서 느헤미야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기만을 관심하거나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언제나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다 — 느 5:10, 14-19.
- E. 총독으로서 왕의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인도하는 이들이 어떠한 일을 보여 주는 본이었다 — 비고 담전 3:2-7, 뱀전 5:1-3.
1.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과 달리 느헤미야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정욕에 빠지지도 않았다.
  2. 총사령관인 느헤미야는 원수와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춘 이들 중에 포함되었으며 야간 파수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직접 그 일에 참여하였다 — 느 4:9-23.
  3. 그와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총독에게 지정된 양식을 십이 년 동안 먹지 않았다 — 느 5:14-15.
  4. 느헤미야는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성벽 공사에만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성벽 건축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다 — 느 5:16-18.
- F. 느헤미야는 통치자였지만 전혀 야심이 없었다. 이것은 나라를 재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에스라가 필요함을 느헤미야가 인정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 느 8:1-10, 빌 2:3-4.
- G. 느헤미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완벽한 인도자였고, 장로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뛰어난 본이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들 안의 인도자들이 그의 본을 상고해 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우리는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흘려 내보내는 일에 본이 될 수 있다 — 느 5:19, 13:14.